2000년, 다시 탈춤으로

제 5회

2000 CHINJU MASK DANCE DRAMA FESTIVAL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지역축제

진주탈춤한마당

2000. 5. 26금-28일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야외공연장

주 최 : (재)삼광문화연구재단
주 관 : 진주탈춤한마당 실행위원회
후 원 : 진주시 · 경남일보 · 진주신문
KBS진주방송국 · 진주MBC · 서경CATV

새천년 진주의 봄축전에 새 불림을

채 희 완

21세기는 문화와 가상세계와 몸에너지의 창조시대라고 한다. 자기 삶을 스스로 제작하고 관리하는 자기 연출의 시대인가 하면, 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표현주체가 되어 춤과 노래와 연행이 뭉쳐나오는 축전의 시대이기도 하다. 이 21세기의 첫머리에 한국, 그것도 경상남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진주고을에서 근원적인 세계로 회귀를 꿈꾸는 큰 굿판이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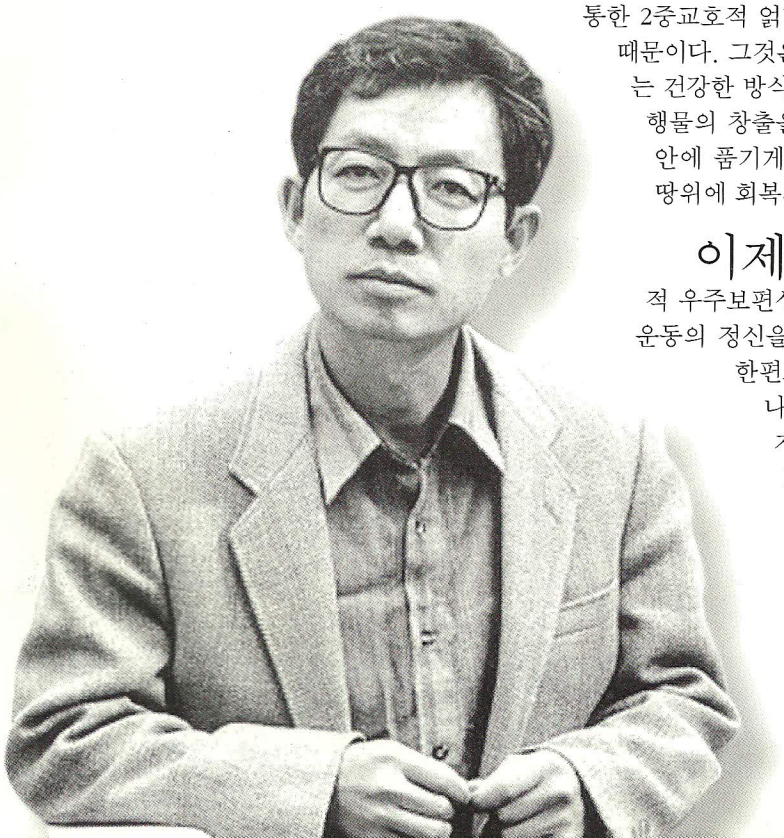
"진주탈춤한마당"이란 이름의 이 굿판은 4년의 연륜을 쌓았다. 그러나 새천년의 새로운 세기, 그 첫해를 맞이하고서 새로운 다짐의 "불림" 한 자리 없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올해 이굿판의 캐치프레이즈를 "2000년, 다시 탈춤으로"라고 잡았다.

탈춤의 전승사를 두고 볼 때 200여년전 봉건사회 해체기에는 탈춤이 신흥민중예술로서 일대 그 전변기를 맞았다. 그 이후 1930년대 일제시대에는 몇몇 뜻있는 민족인들에 의해 민족문화회복운동의 일환으로 탈춤부흥기운이 있었고, 1970년대 유신시대에는 대학탈꾼들에 의해 민중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탈춤부흥운동이 있었다.

격변하는 시대상황에 따라 탈춤이 역사상에 뜨고 가라앉음을 거듭해 왔지만 실상 그것은 탈춤을 생산하고 전승해온 이들, 나아가 탈춤을 옹호하고 혁신하고 추동해온 이들의 역사상 부침에 따른 결과일 따름이다. 그러기에 과연 새로운 탈춤의 시대는 올것인가는 탈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의 문제이고 사람하기에 달린 것이라 하겠다.

"탈춤 매체의 활용가능성과 그 지향"을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움은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희망사항을 담고 있다. 청소년 중심의 창작탈만들기대회도 같은 뜻에서이다. 우리는 전승탈춤과 마당극을 중심으로 두고, 전통춤, 민요, 풍물, 판소리, 민속놀이 등 우리 문화의 원류와 정신적 기저를 이루는 연행물들로 이 굿판을 짰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 힙합공연, 현대춤, 대중가요, 퓨전 공연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오늘날 신생주류문화와 합종 연횡을 모색해 보았다. 화해와 상생, 그리고 몸의 섞음을 통한 2중교호적 얽힘이야말로 우리 탈판, 우리 굿판의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현대판 패로디의 형태를 띨 것이고, 마침내는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수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총체연행물의 창출을 통해 21세기에도 본원적인 우주 생명력을 이 굿판 안에 품기게 하여 소멸, 와해되어가는 공동체적 삶의 기운을 이 땅위에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이제 다섯돌을 맞는 "진주탈춤한마당"은 탈춤의 원형질적 우주보편성을 회복함으로써 한편으론 진주 농민항쟁과 형평사운동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가는 진주의 봄 축전으로 자리잡고, 또 한편으론 진주지역의 폐쇄적 개성을 넘어서 민족 공동체 나아가 지구촌의 보편적인 문화 지향을 담은, 세계적인 지역축전의 한 전범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임을 재삼 기약해 본다. 이 행사를 위해 앞일, 뒷일, 궂은 일에 정성을 다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실행위원장)